

“4차원 소녀 NO... 인어공주로 불러줘요”

아시아 무대 제패한 수영 얼짱 정 다래 금의환향

“다음 시상대에서는 울지 않을래요.”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인어공주’ 정다래(20·전남수영연맹)가 고향 여수에서 세계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육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수 구봉초 1학년 때 수영을 시작한 정다래는 이후 문수중-부영여고를 거쳐 선수 생활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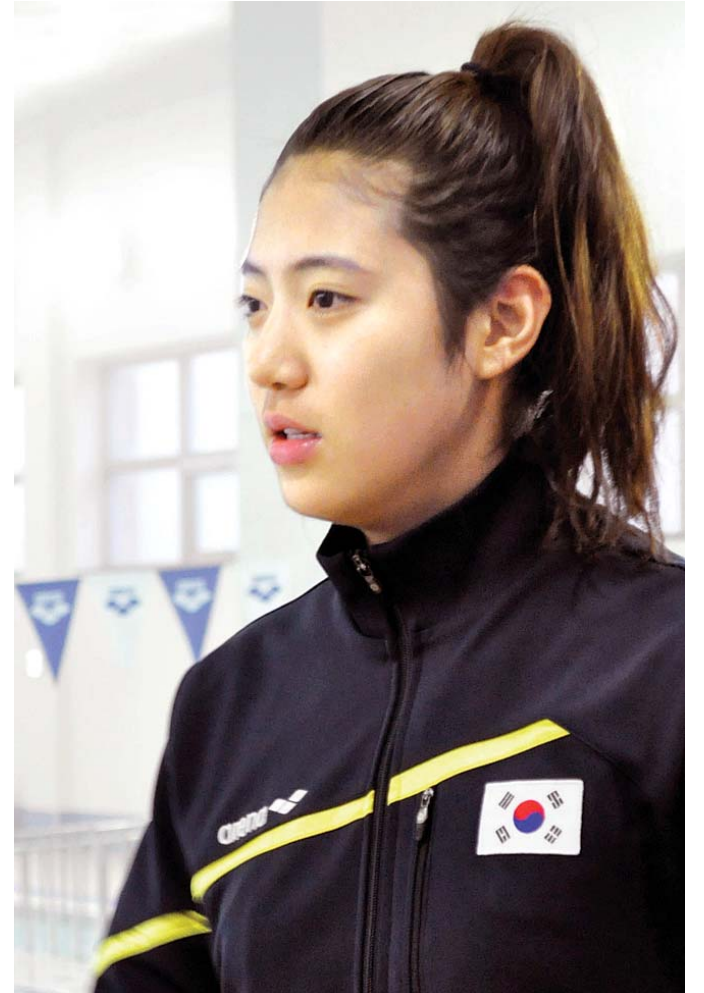
고향 여수에 훈련캠프

이젠 런던올림픽 도전

다음 시상대선 안운다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테스트를 받게 된다. 아직 영법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올림픽을 위한 자세 교정과 함께 ‘연습용 선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여수로 돌아온 정다래는 몸살기운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 출연과 CF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간단히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여수=김여울·김창화 기자 wool@kwangju.co.kr

전·지·훈·련

KIA 등 8개 구단
내년 1월 해외로

프로야구 8개 구단이 2011시즌을 위한 전지훈련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8개 구단 대부분이 12월이 넘도록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등 올해는 ‘강도 높은 훈련’이 대세다.



설원 질주 2일(한국시간) 캐나다의 알버타 레이크루이스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알파인 스키에서 이탈리아의 다니엘라 메리게타가 턴을 하고 있다.

조광래호 13일 소집... 아시안컵 담금질

이운재 공백... J-리그 활약 골키퍼 김진현 호출

조광래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애초 창원에서 제주 서귀포로 장소를 바꿔 오는 13일부터 아시안컵을 대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일까지 제출하고 개막 열흘 전인 오는 28일까지 최종명단 23명을 확정해야 한다.
조 감독은 이번 소집 훈련에 J-리그에서 활약하는 골키퍼 김진현(23)을 호출했다.

대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팀이 처른 51경기 가운데 50경기에 출전하며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팀이 1부 리그로 승격된 뒤로도 주전으로 뛰다 8월 초 훈련 도중 왼쪽 무릎 반월판을 다쳐 재활하다 지난해 중순 그라운드에서 복귀했다.

연봉 20억원

이승엽 오릭스와 1년 계약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나온 이승엽(34)이 퍼시픽 리그 오릭스 버펄로스팀에 이적했다.
오릭스 구단은 2일 이승엽과 1년간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상금 8000만원

AG 2관왕 ‘소년 신공’ 김우진

2010년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세계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오른 고교공사 김우진(18·충북체고)이 돈방석에 앉았다.
대한양궁협회는 대회에서 선전한 남녀 양궁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을 격려하기 위해 선수단 12명에게 포상금 5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Christmas family buffet
12월 24일 | 18:00~21:00
12월 25일 | 12:00~15:00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